

## 상실의 시대와 기독교미술

편집인 전광식(고신대학교수)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규정짓는 말들은 다양하다. 정치적으로는 ‘탈이데올로기의 시대’, 문화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종교적으로는 ‘탈기독교시대’ 등, 시대의 정신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며 복잡하므로 시대를 규정짓는 개념들도 현란한 것 같다.

하지만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다른 하나의 용어는 ‘상실의 시대’라는 개념이다.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용해서 대중화된 것 같지만 나부터도 시대정신에 대해 이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던 용어였다. 이 일본작가의 글을 탐독할 여유가 없었지만 그는 아마도 이 작품에서 젊은 세대의 상실을 운위하고 있었고 그것도 애정의 문제를 다룬 듯하다.

하지만 내가 이 머리글에서 논하는 ‘상실’은 모든 세대에 걸친 보편적인 문제이고 특히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많은 것을 이룬 세기였다. 오늘날 인류가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이기들은 대개 20세기에 이르러 개발된 것이든지 아니면 이전 세기에 개발되었어도 20세기에 이르러 상용화된 것들이었다. 멀리 눈을 돌릴 것도 없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컴퓨터, 핸드폰, 텔레비전, 자동차 같은 물건들만 봐도 한결같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상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20세기는 가장 큰 ‘획득의 시대’였음이 분명하다. 이 시대는 이런 획득과 더불어 <루이 14세시대사>에서 볼테르(Voltaire)가 말한 인류사의 4번의 ‘행복한 시대들’을 다 능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온 세기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세기는 ‘상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화려한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또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다. 20세기가 남긴 과학의 결과들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자연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 과학이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이 도시를 만들면서 우리들에게서 고향을 앗아갔다. 또한 20세기의 시대정신이던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탈(脫)로고스적인 경향으로 인해 이성과 합리성을

빼앗았고, 전통과 관습마저도 탈취해 갔다. 그리고 전쟁과 시대의 살벌함은 인류에게서 꿈도 앗아갔다. 이러한 자연의 상실, 실향, 이성의 결여, 전통의 소멸, 꿈의 부재는 바로 인간의 상실, 신의 상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배격으로 이어진다. 이 문명은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간 것이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상실은 세상과 우리의 삶을 추하게 한다. 이것은 마치 <파우스트>(Faust)에서 젊은 파우스트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지만 그의 영혼만은 달라던 메피스토펠레스의 음흉한 거래 같은 것이지도 모른다.

이런 상실의 시대에 예술이 자리할 위치는 어디인가? 상실의 시대에서 상실을 바라보면 그것을 지적하고 선포하며, 나아가 그것으로부터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요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상실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는 것은 종교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예술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특히 구원과 진리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과제이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상실의 시대에 복음 안에서 이뤄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세상에 던지는 이들이다. 특히 이러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데서 어쩌면 예술가들이 진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미(美)의 회복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은 추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여기에 글을 쓴 모든 작가들과 학인들의 필생의 과제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모두들 의미있는 작업들을 여기에 남기고 있는 것이다.

10여년전에 통합연구에서 ‘기독교미술’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은 필진을 그 때와 완전히 다르게 바꾸었다. 이번의 특집호에서 특히 기릴 만한 것은 현장에서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되돌아보는 글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동양화내지 한국화의 홍푸르메와 서양화의 윤영화교수가 그런 예이다. 그리고 테라코타와 조각으로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 오의석교수에 대해서는 그를 연구하고 있는 다른 분에 의해 글이 씌어졌다. 그 밖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평론가인 서성록교수, 그리고 소위 ‘찬송화’를 창작하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로마카톨릭의 이교적 내지 혼합주의적 예술세계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비평가 신규인교수, 무엇보다 프랑스의 현역 평론가로 현대 기독교미술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신 Cottin교수 등은 그 주옥같은 글들을 통하여 이번 특집호를 빛내었고 명실공히 <통합연구>를 국내외의 대표적인 기독교학술지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홍교수와 윤교수, 오교수와 신규수의 모든 작품들은 이 상실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인간회복과 만물회복을 추구하고, 먹의 세계 색의 세계, 사진의 세계, 형체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를 드러내면서 그 미의 원작자이시며, '완벽한 창조적 화가요 조각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서교수와 Cottin교수의 글들도 이러한 예술의 본질적 과제와 사명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미술의 세계에서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선도적인 분들이시며 그분들이 참여한 우리의 <통합연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Soli Deo Gloria!!!